

“건강으로 만나고, 문화로 소통합니다”

- 하나원 화천분소,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지원·문화행사 개최(7.2.) -

-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(이하 ‘하나원 화천분소’)는 7월 2일(목), 북향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소통행사를 개최했다.
 - 이번 행사는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연계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, 하나원 화천분소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.
 - 행사에는 강원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북향민과 지역주민을 비롯해 화천군수, 화천군의회 의장, 화천경찰서장, 간동면장, 간동면 이장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.
- 하나원 화천분소는 이번 행사에 앞서 6월 22일(월), 간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1차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. 이번 행사에서는 1차 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2차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.
 -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혈당·빈혈·콜레스테롤 간이검사, 치과 구강검진, 구강보건 교육, 한방 건강관리 교육 등이 진행됐다.
 - 참여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, 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- 또한, 하나원 화천분소는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‘하나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한마당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행사를 함께 진행했

다.

- 문화행사에서는 북향민 공연단 ‘남북통일 코리아’가 참여해 「반갑습니다」, 「그리운 금강산」 등을 공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- 이어 「남북한 문화의 이해」를 주제로 북향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.

□ 하나원 화천분소 김영일 분소장은 “하나원 화천분소의 최우선 역할은 북향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지만, 시설 개방을 계기로 북향민과 지역주민 간 가까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”라며, “건강지원과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북향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□ 하나원 화천분소는 앞으로도 화천군, 간동면사무소 및 이장단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, 건강지원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북향민과 지역사회 간 소통사업의 정례화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관련 사진(별도 첨부)

담당 부서	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	책임자	과 장	김환선 (033-440-3650)
		담당자	사무관	심영환 (033-440-3670)

